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더민주 vs 非민주’ 선거戰 돌입

5개 구청장 더민주·평화당 경쟁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등록 안해
바른미래당 3명·정의당 2명 등록

광주·전남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전의 막이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타 당 전·현직 단체장 후보의 경쟁구도가 주목된다.

광주의 경우 현직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닌 동구와 서구의 선거전에서 각 후보가 어떻게 경쟁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많다.

다른 구도 민주평화당 후보들의 지역 기반이 만만치 않아 정당지지율과는 상관없이 의외의 선거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선거는 민주당이 경선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잡음과 논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싸움이 전략의 성공 여부와 연결될 수 있다.

평화당과 저력을 지닌 무소속 후보들은 그 틈을 파고 선거 승리 전략을 짜고 있어 이들의 선전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광주 5개 구청장 선거는 현재까지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경쟁이다. 민주당은 5명의 후보를 모두 뽑았고, 평화당도 남구를 제외하고 4명의 후보를 내놓았다.

바른미래당은 동구 외에는 후보를 선정하지 못했고 자유한국당도 후보를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정당지지율을 바탕으로 5개 구청장 싸움을 노린다.



지난 3일 오후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모의실험에서 북구청 사전투표관리관과 장비담당사무원들이 통신망 점검과 모의투표용지 출력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물론을 앞세운 평화당은 민주당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는 지역민들의 지지까지 얻어 최소 2곳 이상에서 승리하겠다는 베푼다.

현직 구청장이 민주당 후보가 아닌 동구와 서구는 이번 구청장 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동구는 김성한 현직 구청장이 민주평화당 깃발을 들고 후보로 나섰다.

민주평화당은 현직 프리미엄까지 쥐고 있는 만큼 절대 뺄 수 없다는 각오다.

여기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동구에서 '정치 잔뼈'가 굵은 임택 전 광주시의원을 후보로 선출하고 현직 구청장의 아성을 무너뜨릴 태세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의 강력한 지원을 업고 출마한 김영우 후보는 박 의원의 조직력에 힘입어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서구도 현직 임우진 구청장이 민주당

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해 치열한 싸움을 예고했다.

임 청장은 민주당에서 컷오프되자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민주당 후보로 뽑힌 서대석 후보와 겨룬다.

평화당은 언론인 출신인 이성일 전 호남매일 사장을 내세웠다.

최영호 전 구청장이 3선 도전을 포기한 남구는 민주당 후보로 김병내 전 청와대 행정관이 선출된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 경쟁 후보가 없는 상태다.

송광운 청장이 3선 연임으로 물러나는 북구에서는 문인 전 광주시부시장이 박빙의 당내경선을 뚫고 민주당 후보로 뽑혔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지역을 갈고 닦은 이은방 전 광주시의회 의장이 후보로 나섰다. 광산구는 김삼호 민주당 후보와 이정현 민주평화당 후보가 격돌한다.

김삼호 후보는 민형배 전 청장의 지원

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정현 후보는 농협조합장 경력 등으로 탄탄한 밑바닥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어 불만한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주를 바라는 민주당의 기대를 평화당, 무소속 후보들이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후보 풀림 현상에 즐거운 비명을 지른 끝에 경선, 단수 공천, 전략 공천으로 22개 시·군 기초단체장을 확정했다.

시·군별로는 ▲목포 김종식 ▲여수 권세도 ▲순천 허석 ▲나주 강인규 ▲광양 김재무 ▲담양 최형식 ▲곡성 유근기 ▲구례 김순호 ▲고흥 공영민 ▲보성 김철우 ▲화순 구종곤 ▲장흥 박병동 ▲강진 이송욱 ▲해남 이길은 ▲영암 전동평 ▲무안 정영덕 ▲함평 김성모 ▲영광 김준성 ▲장성 윤시석 ▲완도 신우철 ▲진도 이동진 ▲신안 천경배 후보가 나선다.

경선에 출전한 민선 6기 단체장 8명 가운데 4명이 탈락할 만큼 열띤 경쟁 속에 라인업을 완성했다.

그러나 전략공천에 대한 기존 출마 예정자의 반발, 재심 신청 폭주 등 경선 잡음으로 전남 지방선거에서 손쉬운 승리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겠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화당이 그 틈새를 노린다. 현재까지 14개 시·군 후보가 확정됐다.

▲목포 박홍률 ▲순천 이창용 ▲나주 김대동 ▲곡성 조상래 ▲구례 박인환 ▲고흥 송귀근 ▲화순 임호경 ▲강진 광영체 ▲해남 명현관 ▲영암 박소영 ▲무안 김호산 ▲영광 김연관 ▲함평 이윤형 ▲진도 장일 후보 등이다.

특히 박지원 의원 영향력으로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전남 서남권에서 선전할 것으로 평화당은 기대한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다.

전남이 불모지다 시피 한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직 한 명의 예비후보도 등록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은 3명, 정의당도 2명에 그친다.

오히려 전남 지방선거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무소속 후보들의 활약에 눈길이 간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남 22개 시·군 기초단체장 가운데 8명은 무소속이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전남 무소속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제1회 2명, 제2회 7명, 제3회 6명, 제4회 7명, 제5회 7명으로 만만찮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번에도 구례 전경태, 보성 하승완, 신안 박우량 등 전직 군수들이 포진한 가운데 26명이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지만 유두석 장성군수와 정현복 광양시장은 무소속으로 각각 3선, 재선을 노리는 저력의 보유자다.

지역 평가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유효할 수 있지만 민주당 후보당선을 장담하기 어렵거나 오히려 열세인 곳도 상당수 눈에 띈다"며 "민주당 강세 속에 평화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몇 곳을 가져갈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지난 5일 오후 세월호 선체를 바로 세울 1만급 해상크레인이 전남 목포신항에 접안해 있다. 해상크레인인 와이어 연결 등 준비 작업을 마치고 오는 10일 오후로 누워있는 선체를 똑바로 세울 예정이다. /연합뉴스

세월호 선체 세우기 D데이, '10일' 확정

세월호 선체 세우기(직립) 'D데이'(D-day)가 10일로 확정됐다. 7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직립공사업체인 현대삼호중공업이 기상청의 중기예보를 검토한 결과, 목포지역 날씨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예보돼 오는 10일을 직립 착수일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예보에 따르면, 10일 전남은 구름이 조금 끼는 비교적 맑은 날씨가 보일 전망이다. 특히 서해 남부 해상의 파고가 0.5~1m로 잔잔하고 바람도 약할 것으로 예상돼 세월호 선체를 크레인으로 바로 세우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목포신항 현장에서는 바로 세운 세월호 밑부분의 철제 빔 33개를 받칠 '반목' 설치 작업이 진행됐다. 8일까지 철제 빔에 와이어 연결 등을 마치면 직립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은 마무리된

다. 9일에는 3시간가량 예행연습을 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차질없이 준비가 끝나면 'D데이'인 10일 오전 9시 직립 작업을 시작한다.

해상크레인으로 수평·수직 빔에 각기 다른 힘을 적절히 가해 35도, 40도, 50도, 55도, 90도 등 총 6단계에 걸쳐 세월호를 들어 올린다. 크레인에 선체를 오래 매달아 돌수록 위험해지는 만큼 직립 작업은 4시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직립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수평 빔 해제와 안전 시설물 제거를 다음 달 10일까지 마무리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9일 예행연습에서 곧바로 직립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으나, 될 수 있으면 10일에 직립을 시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목포=김남중 기자

출산장려금 1000만원 '첫번째 수혜자' 탄생

장흥군, 다섯째 아이 이상 출산 지원
첫째·둘째 300만원 등 장려금 확대

장흥군이 올해부터 다섯째 아이 이상 출산 시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후 첫 수혜자가 탄생했다.

장흥군에서는 처음으로 출산장려금을 받게 된 주인공은 김평국, 김호정 부부다. 현재 부산면 자미마을에서 살고 있는 김 씨 부부는 지난 3월 다섯째 은실이를 출산했다.

모두 3남2녀의 다복한 가정을 꾸린 김 씨 부부는 복덩이 다섯째가 태어나면서 장흥군 1호 출산장려금 1천만 원의 첫 수혜자가 됐다.

장흥군은 지난 4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다섯째 아기를 출산한 가정을 찾아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양한 육아용품을 전달했다.

출산장려금 지급증서와 육아 용품 외에도, 편백숲 하우스, 림프만, 엘디마트,



메이 스튜디오, 비너스 등 지역 사업체에서 선물도 함께 전달했다.

이날 선물은 어린이 날 기념 선물세트 및 이불, 백일기념 촬영권 등으로 지역 사회의 다양한 관심과 응원이 담겼다.

엄마 김호정 씨는 "다섯째가 태어나 무엇보다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키울지 걱정도 되는 것이 현실이었다"며, "하지만 장흥군의 출산정책이 든든한 지

원군이 됐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올해부터 첫째·둘째 300만 원, 셋째·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 1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 나섰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급만료일까지 부모 중 한명이 출생아와 같이 장흥군에 주소로 되어야 한다. /장흥=이진오 기자 alice1008@

장흥군 찰벼 재배 기술교육

장흥군 용산농협(조합장 김영진)은 지난달 25일 본격적인 농번기철을 맞이하여 체계적인 재배로 고품질 찰벼 생산을 위하여 영농기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판농농의 김진혁 과장을 초청하여 실시하였으며, 영농철이라 바쁜 와중에도 15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여 교육에 열정을 보였다.

이번교육을 통해 찰벼의 특성과 재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병해충 예방과 품종별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재배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이론 교육과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찰벼 재배 과정에서 느꼈던 애로사항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용산농협은 매년 찰벼, 양파 등 맞춤형 영농기술교육 및 영농자재 지원과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장흥=이진오 기자